

송지만 “자신만의 존으로 승부… KIA 타격, 정교해졌다”

〈타격 코치〉



KIA 타이거즈가 방향성과 자신의 존을 가지고 올 시즌 타격 강화를 노린다. 사진은 새로 팀에 합류한 송지만 타격 코치(왼쪽)가 박찬호와 이야기하는 모습. /연합뉴스

**좌 최희섭·우 송지만 코치 시너지
야수진 세대교체 착실히 진행
연습경기 거치며 새 색깔 알아입기**

**오후 경기에도 오전부터 솔선 훈련
엑스트라 없애고 선택과 집중
모든 선수들 한 방향 전진 중**

**기량 연마만큼 강한 정신력 중요
선수 개인 최대치 끌어내는게 목표**

개막을 기다리는 윌리엄스호에는 '전략'이 있다. KIA 타이거즈의 2020시즌 가장 큰 변화는 사령탑이다. 구단 역사상 첫 외국인 사령탑인 윌리엄스 감독이 올 시즌 KIA의 가장 큰 전략과 변수다.

윌리엄스 감독은 마무리캠프를 시작으로 스프링캠프와 자체 연습경기를 통해 자신의 색을 타이거즈에 입히고 있다. 빅리그를 호령했던 강타자 출신인 만큼 KIA의 공격력에 사람들의 시선이 쏠린다. 역시 빅리그 출신의 최희섭 코치와 KBO리그 역사에 이름을 남긴 송지만 코치도 윌리엄스 사단에 합류한 만큼 KIA의 화력은 관심사다. 몇 년간 계속된 야수진 세대교체라는 고민에도 2020시즌 준비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방향성'과 '자신의 존'이 변화의 핵심이다. 선수들과 코치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방향성'이다. 팀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는 실전이 있다. 훈련을 위한 훈련이 아닌 이기기 위한 훈련이 그 중심이다. 그라운드에서 진행되는 KIA의 훈련 시간은 파격적으로 줄었다. 송지만 코치가 KIA로 와서 가장 먼저 시행한 것이 엑스트라 훈련을 없앴는 것이다. 송 코치는 "감독님과 꾸꾸였던 야구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재미있게 하고 있다. 컨디션, 환경, 휴식이 중요하다"며 "엑스트라를 없앴다. 그라운

드 안에서 어떤 훈련을 하는지 체크하고 테스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별적인 훈련 루틴을 얼마만큼 소화할 수 있게 배려하느냐가 중요하다. 본인이 알아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게끔 시간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이야기했다. 그라운드에서 보내는 시간은 줄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수들은 자신의 루틴을 만들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다. 오후 1시 경기가 열리는 날에도 이른 오전부터 선수들은 경기장에 나와 자신만의 방식대로 경기를 준비하고 공부하고 있다. 최상의 컨디션과 완벽한 준비로 경기를 하고, 승률을 높이는 게 윌리엄스호의 우선 방향이다. 이를 위해 모든 구성원은 같은 방향을 보고 전진하고 있다. 최희섭 코치는 "우리는 타격 코치가 4명이다"고 이야기한다. 1·2군 코치진이 모두 함께 선수들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의미다. 지도자의 성향과 방향이 다를 경우 1·2군을 오가는 선수들은 많은 혼란을 겪는다. 하지만 KIA는 같은 방향을 보면서 선수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하고 있다. 송 코치는 "선수 생활 19년 하면서 여러 품으로

바뀌었다. 이 부분을 깨닫는데 15년이 걸렸다. 완벽을 추구하는 환경, 코치 때문에 피해를 보는 선수들도 있다. 가지고 있는 최대치를 끌어내는 게 현명하다"며 "야구는 맨탈이다. 생각 하나의 차이에서 나오는 결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날 그날 경기, 연습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게 전부다 아니다. 다음 경기, 다음 타석이 있기 때문에 선수가 지속적으로 자기 것으로 소화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또 기량 연마도 중요하지만 슬럼프를 최소화하는 게 관건이다. 거기에 맞는 휴식, 트레이닝,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두 코치는 굳이 좌우 구분을 하지 않고 지도를 하고 있다. 선수들이 알아서 선택을 하고, 받아들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송 코치는 "좌타우타 타격 코치가 두 명인 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다. 장점을 살리기 위해 고민했다. 선수들이 물어봤을 때 조언을 해주되 좌타 우타에 구분하지 않고 선수들이 선택하도록 했다. 의견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눈치 보지 않고 받아들이게 했다"고 설명했다. 승리를 향한 방향에는 '자기만의 존'이 있다. 방향성과 함께 선수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게

'존'이다. 두 코치는 단점이 아닌 장점을 강조하고 있다. 잘 칠 수 있는 존에 집중해서 결과를 내라는 게 요지다. 선수들이 캠프에서 우선 신경 쓴 게 자신의 존 설정이었다. 타자들은 거기에 맞춰 집중력 있는 타격을 하고 결과를 만들고 있다. 냉정한 현실 파악으로 장타력도 배제했다. 올 시즌 KIA 타격의 첫 번째 항목은 '선구안'이다. 송 코치는 "타격 전략과 방향성에서 장타력을 배제했다. 장타를 쉽게 낼 수 있는 선수가 몇 명 없다. 최형우, 나지완처럼 선구안 장점이 있는 선수들을 보면서 최우선으로 선구안 위주로 가고 있다. 칠 수 있는 공과 칠 수 없는 공을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의도적으로 장타력에 집중하기보다는 콘택트 위주의 타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노리겠다는 계산이다. 송 코치는 "올해 야구를 보면서 확실히 KIA 타이거즈가 뭔가 안에 전략이 있구나를 느끼게 해드리고 싶은 바람이 있다"며 2020시즌을 기다리는 마음을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야구 다음달 초 개막·144경기 유력

코로나19 추이 가장 큰 변수... 14일 이사회서 최종 결정

2020년 프로야구 10개 구단에 '5월 초'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5월 초에 2020년 정규시즌을 개막하면 팀당 144경기를 치를 수 있다. KBO와 10개 구단은 '경기 수 축소'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지만, '144경기 체제 유지'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KBO 실행위원회는 7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고 '2020시즌 정규시즌 개막 시점'을 논의했다. 논의는 '144경기를 소화하는 일정'에 맞춰 진행됐다. 4월 21일에 다른 팀과의 연습경기를 시작해, 5월

초에 정규시즌을 시작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무관중 경기'는 각오했다. 류대환 사무총장은 "개막전은 무관중으로 치를 가능성이 크다. 처음에는 무관중으로 시작하고 10%, 20% 점진적으로 관중을 늘려가는 방법을 고려 중이다"라고 밝히며 "TV로라도 경기를 보는 게 팬들이 원하시는 일인 것 같다"고 했다. KBO는 14일에 이사회를 연다. 이사회는 개막일을 확정할 수 있는 의결 기구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코로나19 확산 추이다. 확산 위험이 다시 커지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연장되면 KBO도 정규시즌 축소를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경기 중 감독 인터뷰 도입

KBO와 구단, 방송사가 경기 중 감독이 마이크를 잡고 상황을 설명하는 '경기 중 인터뷰'를 도입하기로 했다. KBO는 7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서 열린 실행위원회에서 '감독이 경기 중 헤드셋을 착용하거나 핸드 마이크를 들고 중계진과 인터뷰를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팬들에게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전달하지는 못하지만, 팬들에게 경기 중 감독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KBO 관계자는 8일 "구단이 '경기 중 감독 인터뷰'에 동의했다. 구단이 직접 감독에게 설명하는 시

간 필요해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다"며 "역대 최대 규모(4년간 총 2160억원)로 중계방송권 계약을 한 방송사(KBS, MBC, SBS)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의욕을 보였다. 팬들께서도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신다. 경기 중 감독 인터뷰가 팬들의 감동을 풀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 중 감독 인터뷰'는 3연전 중 2차례, 3회 말 이 끝난 뒤 할 계획이다. 3연전 중 홈팀 감독이 한번, 원정팀 감독이 한번 '경기 중'에 감독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연합뉴스

마스터스 역대 최강자는 잭 니클라우스

PGA, 우승 횟수따라 순위 선정
2위 타이거 우즈·3위 미겔슨

'명인 열전' 마스터스 토너먼트의 역대 최강자는 누구일까. 1934년 창설된 남자 골프 메이저 대회 마스터스는 올해 9월 막을 올릴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11월로 미뤄졌다. 해마다 4월에 열리는 이 대회가 11월에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월 이외의 시기에 개최되는 것은 대회 원년인 1934년 3월 이후 올해 11월이 86년 만이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는 8일 지금까지 마스터스에서 좋은 성적을 낸 선수 20명을 추려 순위를 매겼다. '마스터스 올 타임 파워랭킹'이라는 제목의 이 순위에서 영예의 1위를 차지한 선수는 잭 니클라우스(80·미국)다. 니클라우스는 1963년과 1965년, 1966년, 1972년, 1975년, 1986년 등 마스터스에서 6차례나 정상에 올랐다. 메이저 대회 통산 18승으로 남자 골프 최다 메이저 우승 기록 보유자인 니클라우스는 마스터스에서도 유일하게 6차례나 우승한 선수다. 또 5위 안에 15차례 들었고, '톱10' 성적은 22번이나 냈다. 1998년에는 58세 나이에 공동 6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 우승자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5·미



잭 니클라우스



타이거 우즈

국)가 2위로 좁혔다. 우즈는 1997년과 2001년, 2002년, 2005년, 2019년 등 마스터스 그린 재킷을 5차례 입었다. 1997년에 만 21세로 최연소, 2위와 12타 차로 최다타수 차 우승 기록을 세웠다. 톱10에는 14번 이름을 올렸다. 3위는 세 차례 우승한 필 미겔슨(50·미국), 4위

는 2016년에 세상을 떠난 아널드 파머(미국)가 선정됐다. 5위는 계리 플레이어(85·남아공)다. 파머는 이 대회에서 네 번 우승했고, 플레이어는 세 차례 정상에 올랐다. 올해 마스터스는 11월 12일부터 나흘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펼쳐진다. /연합뉴스